

광주·전남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은?

활력 넘치는 신경제지도 완성

지역공동 현안 해결 주력

광주시 민선8기 광주시정 방향은 '삶의 혁명', '활력'으로 대표된다. 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5대 신산업지구', '5대 신활력특구'로 대표되는 '광주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왔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밀린 숙제'라고 언급한 '5+1' 현안이 선결 과제다. 강 당선인은 복합쇼핑몰 건립을 포함해 지산 나들목(IC), 어등산 관광단지, 백운 지하차로,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관련한 5가지 현안에 대해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5+1'에 해당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대구 사례를 적용해 준비하면서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5가지 과제 중 어등산은 항소 중으로 힘든 상황이다.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주 중 구체화한 계획과 진전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이 역시 다음 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

어등산 제외 현안 해법 준비 순조 7일 인수위 보고회서 로드맵 제시

파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삶의 관점에서 쇼핑,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시장은 "국가 지원, 민간 자본 투자,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등 3박자가 어우러지는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생존 전략으로 제안한 영호남 반도체 동맹도 영남 지자체들의 반응이 없어 성사 여부가 미지수다. 보수 정권 출범 등 대외적인 환경도 앞으로의 예산 확보 등 시정 운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 시장은 오는 7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정 구상과 현안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민선8기 김영록호의 기치는 지역 상생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다. 민선 7기 내내 잡음이 계속됐던 광주시와 상생 현안은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김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후보 시절 '상생 정책 협약'을 했고, 민선 8기에는 광주와 함께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하기로 하는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친다. 양 지역 최대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현재 제시된 '기부 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광주시와 강구한다. 더불어 화순 백산산업 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유치,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교통망 연결,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벨트도 머리를 맞댄다. 일자리 창출의 토대는 반도체·해상풍력·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등 민선 7기에 세웠던 지역발전 핵심 사업들로 삼는다.

반도체 단지·초광역경제 공동체 협력 국가 차원 포괄·획기적 발전대책 강구

광주시와 함께 상생 1호 협력으로 추진할 1,000만㎡ 규모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그중에서도 새롭게 추진하는 일자리 신호탄이다. 국제 경제 동향에 따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는 만큼 지역 반도체 산업을 짜입새 있게 키우기 위해 광주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 역역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전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산업단지인 광양만권·서남권 산단 대개조를 통해 전통 주력산업에서도 일자리가 꾸준히 나오도록 산업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김용현 기자

'광주철도 100년' 기획전시 열린다

7일부터 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시에 철도가 들어온 지 100년을 맞아 오는 7월7일부터 8월 21일까지 '광주철도 100년'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에는 지난 1922년 7월 당시 호남선 송정리역과 대인동의 동부소방서 자리의 광주역 사이 15km에 철도가 처음 개통됐다. 이번 전시는 3부로 나눠 지난 100년 광주철도를 대표해온 호남선, 광주선, 경전선을 소개하고, 해당 철도노선을 대표하는 송정리역, 광주역, 남광주역 등 3개 역사 건물을 재현한다. 희귀한 철도 관련 자료 130여 점도 함께 전시한다. 제1부 '1913년 송정리역'에서는 철도가 황룡강변의 작은 마을이던 송정리가 교통의 거점이자 광주의 관문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소개한다. 일제의 수탈 도구라는 생각에 초기 철도는 배척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국권회복과 철도를 나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는 과정을 다룬다. 당시 불린 '호남철도가'를 소재로 제작한 영



광주시 지적조사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청내 세미나실에서 지적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상을 통해 이러한 철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던 송정리역의 초기의 모습을 담은 자료도 발굴, 소개한다. 제2부 '1922년 광주역'에서는 송정리역과 광주시내를 잇는 철도가 필요했던 이유와 그것이 광주역사에 미친 영향을 소개한다. 통칭 '광주선'으로 부른 이 노선은 걸어서 3시간 거리이던 송정리-광주시내 간을 30분 거리로 좁히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촉매역할을 했다. 또한, 반경 수십km의 열차통학권을 형성해 광주가 근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마련했다. 열차통학은 매일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충돌하는 공간이었고, 이로 인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운암역, 나주역, 광주역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제2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통학열차를 끌던 증기기관차를 재현한 길이 4m, 높이 2m의 대형 모형도 전시한다. 제3부 '1930년 남광주역'에서는 광주가 전남 동부와 서부를 잇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1930년 지금의 경전선의 전신인 '광려선'이 개통되면서 이틀거리이던 광주-여수간 여행거리는 한나절 거리로 바뀌게 된다. 이 노선의 광주 쪽 관문인 남광주역은 이후 역 주변에 시장이 생기면서 지금의 남광주 풍경을 만들어냈다. /오선우 기자

민주 광주시의회 의장 정무창 의원 후보 선출



정무창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정무창 의원(광산구2)을 선출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 22명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의원이 같은 재선의 조석호 의원(북구4)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민주당 후보는 2일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정 의원이 사실상 전반기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매일 창간33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남매일 제3기 CEO경제아카데미 원우 동문회 일동



원우 회장 이학재



수석부회장 김경호



수석부회장 배창숙



사무총장 김영준



골프동호회위원장 김영준



트래킹동호회위원장 김서중